

【1부】

새로운 신화와 미의 이상

김 윤 상 (서강대)

I. 들어가는 글 - 현대성과 신화의 문제지형

20세기에 접어들어 다시금 신화에 관한 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통상 포스트모던의 이념이 점차로 “문화비판적인 의미”¹⁾를 획득하게 된 1960년대라 할 수 있지만, 세계관과 인간의 실존방식의 급격한 변화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미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모더니즘의 시기와 포스트모던 이념이 날개를 펴기 시작한 시기의 공통적 문제의식은 ‘정당성 위기 Legitimationskrise’ 혹은 ‘가치의 위기 Sinnkrise’로서, 정치와 경제적인 과정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의뢰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구속력을 상실한 채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일반의지’속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게끔 해주었던 최상의 컨셉을 통한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²⁾

실제적인 삶과 유리된 채 명목적인 추상적 가치만을 다루었던 거대담론들에 대한 회의와 합리성의 신화에 가려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감각적 실재의 복원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진행되었던 모더니즘은 ‘심리적인 것의 정량화’를 주창하였던 헬름홀츠 H. Helmholtz와 마하 E. Mach,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의 접점으로 출발하여 심리물리

1) Jamme, Christoph: “Gott an hat ein Gewand”. Grenzen und Perspektiven philosophischer Mythos-Theorien der Gegenwart, Frankfurt a.M. 1991, S. 9.

2) Frank, Manfred: Der kommende Gott. Vorlesungen über die Neue Mythologie, Frankfurt a.M. 1982, S. 10.

적 psychophysisch 예술학을 정립한 립스 Th. Lipps와 피들러 K. Fiedler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 소리, 냄새 등과 같은 2차적인 물리적 대상들에 대한 형태학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췄던 게슈탈트 심리학 등의 시도들에 힘입어 실제의 존재와 이것의 인식가능성에 대한 소박한 믿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감각적 실제에서 본질과 현상의 통일점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³⁾ 이처럼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학문적 지형이 인간의 감각들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다채로움을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포착하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었다면, 사회문화적인 지형에서는 전통적 권위주의 및 자본주의적 비인간화가 인간해방을 목표로 한 사회발전의 파물과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의 타파나 본래적인 인간상의 회복 그 어느 하나도 단선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시기였지만,⁴⁾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가치체계를 극복하려는 일환으로 인간 노동의 순수하고도 효율적인 사용이 중심적인 문제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발전된 과학기술로 인한 경험영역의 확대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한 기술적 합리성의 신화와 인간노동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노동의 합리성의 신화는 과학기술적인 발전의 측면에서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근원과 의미에 대한 물음, 인식의 통일적 가치로서의 미에 대한 물음, 그리고 조화로운 보편적 인간가치에 대한 추구를 통해 형성된 근대의 ‘통일 철학적’ 담론이 물음을 제기하는 방식과 이러한 방식의 기능양태에 대한 물음, 개별 예술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표현양태들에 대한 물음, 무정형의 개별자들이 이루는 연쇄의 작동원리에 대한 추구를 통해 형성된 탈근대의 ‘문화 정치적’ 담론과 더불어 대립적인 양 진영을 형성하게 된 이래로, 새로운 형태의 신화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제 “인간의 사회적 경험의 객관화”⁵⁾로서 사회적 상징체계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신화는 클로드 레비-스트

3) 김윤상: 지각학 Aisthetik으로서의 미학 Ästhetik?, In: 독일문학 제 100집, 2006, SS. 121ff.

4)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Gregor Schiemann, Wahrheitsgewissheitsverlust: Hermann von Helmholtz' Mechanismus im Anbruch der Moderne, Darmstadt 1997; Gyorgy Kepes, Sprache des Sehens, Mainz 1970.

로스의 『신화의 구조적 연구 The Structural Study of Myth』(1955) 이래로 신화의 ‘합리적 조직화’⁶⁾라는 문제로 집중되었다. 통시적인 서술대신 “공시적인 관계다발 *synchrone Beziehungsbündel*”의 서술방식에 의거하여⁷⁾ “그것들의 내재적인 반복구조”⁸⁾를 해명하고자 했던 레비-스트로스는 『야만의 사유 *La pensée sauvage*』(1962)에 이르러 신화적 사유의 주도적인 핵심원리라고 할 수 있는 ‘브리콜라주 *bricolage*’의 이념을 제기한다. 이것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되어버린 옛것을 이것의 본래적인 연관들로부터 떼 내어 새로운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조합을 통해 다시금 사용가능하게 만드는 작업방식”⁹⁾으로서 60년대 말 이래로 데리다에 의해 ‘보충 *Supplement*’, ‘산포 *Dissemination*’ 개념과 더불어 차이들의 작용력들이 이루는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개념으로 자리 잡는다¹⁰⁾. 말하자면 독창적 조합에 근거한 브리콜라주로서의 신화가 새로운 신화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모더니즘 시기에 ‘예술과 기술의 조화로운 통일’의 이념에 근거하여 새로운 전인적 인간상의 회복을 모토로 하여 나타난 기술과 노동의 합리성의 신화가 ‘산업화와 결부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탈피하여 인간성의 개선을 위해 세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힘들의 징표를 찾아내기 위해’¹¹⁾ “다가올 정신적 종교

5) Cassirer, Ernst: *The Myth of the State*, New York 1955 (1944), p. 57.

6) Stierle, Karlheinz: *Mythos als >bricolage< und zwei Endstufen des Prometheusmythos*, In: *Terror und Spiel. Probleme der Mythenrezeption*, hg. v. M. Fuhrmann, München 1971 (= *Poetik und Hermeneutik Bd. 4*), S. 455.

7) 물론 레비-스트로스보다 반세기 앞서 소쉬르는 언어를 상이한 시니피앙들 간의 차이의 연쇄체계로 규정하였다. Vgl. De Saussure, Ferdinand: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916)*, übers. v. H. Lommel (2. Aufl.), Berlin 1967, S. 82.

8) Stierle, Karlheinz: *Mythos als >bricolage< und zwei Endstufen des Prometheusmythos*, S. 455.

9) Stierle, Karlheinz: *Mythos als >bricolage< und zwei Endstufen des Prometheusmythos*, S. 457.

10) 이에 대해서는 Derrida, Jacques: *Grammatologie (De la grammatologie, Paris 1967)*, übers. v. H.-J. Rheinberger u. H. Zischler, Frankfurt a.M. 1983, S. 183ff.

11) Benson, Timothy O.: *Fantasy and Functionality: The Fate of Utopia*, In: *Expressionist Utopias. Paradise · Metropolis · Architectural Fantas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의 제단에 귀속되는 상징들이자 기술적 생산자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 상징들”¹²⁾을 창조하거나, “순수하게 조합적인 것 *das rein Kompositionelle*을 드러내고 우리 위대한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법칙들을 밝히고자 하는”¹³⁾ 노력으로 나타났으며, 포스트모던 시기의 브리콜라주로서의 신화, 즉 신화적 사유방식의 기능적 작용으로서의 ‘신화의 신화 *Der Mythos der Mythologie*’가 ‘이차적인 기호학적 체계로서의 현대의 새로운 의미화 작용방식’¹⁴⁾을 모색하거나 ‘재신화화 내지는 탈신화화를 통해 신화를 종결시키려는 노력’, 다시 말해 “신화의 함의를 ... 쇠신하며 축적시키고 고양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순수하게 그 자체로 묘사하려는”¹⁵⁾ 노력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모두 초창기 낭만주의와 관념론의 문제의식에 내재해 있었던 ‘새로운 신화 *die Neue Mythologie*’의 이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초창기 낭만주의와 관념론의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국가와 사회 내지는 개인 간의 괴리를 정당성 상실의 문제로 보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새로운 신화’에서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대성 담론의 핵심적 테마들 중의 하나인 신화의 문제가 집중적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 매김되기 시작하였던 독일 전기낭만주의와 초기 관념론 시기에 신화의 담론을 구성하였던 다양한 텍스트들을 분석하면서 신화담론의 현대적 전유를 위한 핵심적 지표들을 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2001, p. 14.

12) Marc, Franz: Die »Wilden« Deutschlands, In: Der Blaue Reiter, hg. v. W. Kandinsky u. F. Marc, München 2004 (Jubiläumsedition der ersten Ausg. 1912), S. 31.

13) Kandinsky, Wassily: Über die Formfrage, In: Der Blaue Reiter, S. 172.

14) Barthes, Roland: Mythen des Alltags, Frankfurt a.M. 1985, S. 93.

15) Blumenberg, Hans: Wirklichkeitsbegriff und Wirkungspotential des Mythos, In: Terror und Spiel, S. 31.

II. 새로운 신화와 미의 이상

전기 낭만주의와 초기 관념론 시기는 본래적인 의미의 ‘위기’로 점철된 시기였다. 라쿠-라바 Philippe Lacoue-Labarthe와 낭시 Jean-Luc Nancy에 따르면, 이 시기의 독일은 ‘삼중의 위기’¹⁶⁾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즉 첫 번째 위기가 부르주아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위기이고, 두 번째 위기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양가적 태도로 인한 정치적 위기였다면, 세 번째 위기는 해방적인 동시에 파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칸트의 비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은 당대의 사상가들에 따르면, 문학과 예술을 포괄하는 새로운 신화의 정립을 통해 가능하다고 여겨졌다.

새로운 신화 담론의 첫 번째 단초는 헤르더에 의해 마련된다. 헤르더는 고대의 형상세계의 상실원인을 기독교 유일신 사상과 근대의 수학적인 자연과학의 대두로 인한 자연의 ‘탈신성화 Entgötterung’로 보면서 고대 신화라는 사회문화적 구속력의 상실을 한탄하였던 쉘러¹⁷⁾와 같은 입장을 가지면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전범성으로부터의 탈피에서 ‘새로운 형상세계 die neue Bilderwelt’의 창조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는 『이두나 혹은 젊어지게 하는 사과 Iduna, oder der Apfel der Verjüngung』(1796)에서 ‘자기 고유의 사유방식과 언어로 움터 나온 신화 eine in ihrer eignen Denkart und Sprache entsprossene Mythologie’¹⁸⁾를 가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모든 민족들의 시인들과 현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로 가장 행복하게 상상력을 발휘했다 die Dichter und Weisen aller Nationen (haben) am glücklichsten in ihrer Muttersprache imaginiert”(Herder 157)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의 독

16) Lacoue-Labarthe, Philippe and Nancy, Jean-Luc: The Literary Absolute (L'Absolu Littéraire, Paris 1978), trans. by Ph. Barnard and Ch. Leste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p. 4.

17) 쉘러의 시 「그리스의 신들 Götter des Griechenlands」 19-23연 참조.

18) Herder, Johann Gottfried: Werke Bd. 8, Schriften zu Literatur und Philosophie 1792-1800, Deutsche Klassiker Verlag: Frankfurt a.M. 1998, S. 156 (이후로는 Herder로 약칭).

일어에 결여된 “고유한 신화 *eigne Mythologie*”(Herder 158)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위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닌 “이러한 (북방의) 전설, 이러한 (북방의) 사유방식, 이러한 (북방의) 언어에 놓여 있는 이상이 모습을 드러내어 작용하였으면 한다 Nun möge das Ideal, das in diesen Sagen, in dieser Denkart, in dieser Sprache liegt, hervortreten und selbst wirken”(Herder 172)고 말한다. 이 같은 헤르더의 ‘이상’은 문학적 상상력의 이상으로서 “다수 속의 일자 *Eins in Vielm*”(Herder 156)라는 이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생성되는 것으로 새로운 신화의 중요한 단초를 형성한다.

헤르더의 『이두나』에서 표명된 이러한 새로운 신화의 단초는 『이두나』 직후에 (1796년이나 1797년) 쓰여졌으리라고 추정되며 새로운 신화 담론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강령조의 한 짧은 텍스트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저자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훔더린, 헤겔, 셸링이 공동으로 구상하였다고 알려진 『소위 독일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프로그램 *Das sogenannte »Älteste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¹⁹⁾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본문과 그에 대한 번역을 시도한 후에 상세히 분석해보기로 하겠다²⁰⁾.

19) 1917년 프란츠 로젠즈바이크 Franz Rosenzweig에 의해 셸링의 글이라고 주장되었던 것이 그 이후 훔더린의 글로서 주장됨으로써, 훔더린의 전집에 이 글이 수록되었지만, 1965년에 다시 헤겔 연구자인 오토 뢰겔러 Otto Pöggeler에 의해 헤겔의 글이라고 주장되다가, 1978년에 디터 헨리히에 의해 새로운 해석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즉, 이 글의 저자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들, 특히 ‘헤겔 아카이브 *Hegel-Archiv*’ 일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부정합적인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시 말해 사유의 모티브나 기본입장들 몇몇에 대한 증거들의 해명을 통해 헤겔 철학의 발전도정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상가의 철학적인 기본입장은 “사상들의 내적인 형성형식을 통해 그리고 철학적인 문제들과 이론적 원리들에 대한 정교화방식들과 정렬방식들의 지배형식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이다. Dieter Henrich: *Aufklärung der Herkunft des Manuskripts »Das älteste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In: *Mythologie der Vernunft. Hegels »ältestes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hrsg. v. Ch. Jamme u. H. Schneider, Frankfurt a.M., 1984, S. 161-162.

20) 본문의 번역과 해석은 이미 필자의 저서 『존재의 모험』(인간사랑: 서울, 2004, pp. 53-63)에 실려 있다.

„Das sogenannte »Älteste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²¹⁾

recto

eine Ethik. Da die ganze Metaphysik künftig in d. Moral fällt –
wovon Kant mit seinem beiden praktischen Postulaten nur ein *Bei-*
spiel gegeben, nichts *erschöpft* ((hat) hat] so wird diese Ethik

nichts anders als ein vollständiges System

aller Ideen, oder, was dasselbe ist, aller praktischen Postulate (ent-
halten –)

seyn. Die erste Idee ist natürl. d. Vorst. *von mir selbst*, als einem
absolut freien Wesen. Mit dem freyen, selbstbewußten Wesen tritt
zugleich eine ganze *Welt* – aus dem Nichts hervor – die einzig
wahre und gedenkbare *Schöpfung aus Nichts* – Hier werde ich auf
die Felder der Physik herab-
steigen; die Frage ist diese: Wie muß eine Welt für ein moral s We-
sen beschaffen seyn? Ich möchte unsrer langsamen an Experimen-
ten mühsam schreitenden – Physik, einmal wieder Flügel geben.

So – wenn die Philosophie die Ideen, die Erfahrung die Data an-
gibt, können wir endl. die Physik im Großen ((bekommen)) be-

kommen, die ich von spätern

Zeitaltern erwarte. Es scheint nt daß die jezige Physik einen schöp-
ferischen Geist, wie der unsrige ist, od. seyn soll, befriedigen
könne.

Von der Natur komme ich aufs *Menschenwerk*. Die Idee der
Menschheit voran – will ich zeigen, daß es keine Idee vom *Staat*

21) 이 글은 원문이 실려 있는 상태 그대로 소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법상의 오류와 단락 구분상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번역 역시 원문의 구성을 그대로 따랐다. 이 글이 실려 있는 지면을 출간시대 순서대로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Franz Rosenzweig: Das »älteste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Ein handschriftlicher Fund, Heidelberg 1917 (Sitzungsberichte der Heidelberg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Jg. 1917, 5. Abh.), Rüdiger Bubner (hrsg.), Hegel-Tage Villigst 1969: Das »Älteste Systemprogramm«. Studien zur Frühgeschichte des deutschen Idealismus, Bonn 1973 (Hegel-Studien, Beiheft 9), Christoph Jamme und Helmut Schneider (hrsg.), Mythologie der Vernunft. Hegels »ältestes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Frankfurt a.M., 1984.

gibt, weil der Staat etwas *mechanisches* ist, so wenig als es eine Idee von einer *Maschine* gibt.

Nur was Gegenstand der *Freiheit* ist, heist *Idee*. Wir müßen also auch über den Staat hinaus! – Denn jeder Staat muß freie Menschen als mechanisches Räderwerk behandeln; u. das soll er nicht; also soll er *aufhören*.

Ihr seht von selbst, daß hier ((als)) alle die Ideen, vom ewigen Frieden u.s.w. nur *untergeordnete* Ideen einer höhern Idee sind. Zugleich will ich hier d. Prinzipien für eine *Geschichte der Menschheit* niederlegen, u. das ganze elende Menschenwerk von Staat, Verfaßung, Regierung, Gesetzgebung – bis auf die Haut entblößen. Endl. kommend. Ideen von einer moral. Welt, Gottheit, Unsterblichkeit – Umsturz alles ((Aberglaubens)) Afterglaubens, Verfolgung des Priestertums, das neuerdings Vernunft heuchelt, durch d. Vernunft selbst. – (Die) absolute Freiheit aller Geister, die d. intellektuelle Welt in sich tragen, u. weder Gott noch Unsterblichkeit *ausser sich* suchen dürfen.

Zuletzt die Idee, die alle vereinigt, die Idee der *Schönheit*, das Wort in höherem platonischem Sinne genommen. Ich bin nun überzeugt, daß der höchste Akt der Vernunft, der, indem sie alle Ideen umfasst, ein ästhetischer Akt ist, und daß *Wahrheit und Güte, nur in der Schönheit* verschwistert sind – Der Philosoph muß eben so viel ästhetische Kraft besitzen,

verso

als der Dichter. Die Menschen ohne ästhetischen Sinn sind unsre BuchstabenPhilosophen. Die Philosophie des Geistes ist eine ästhetische Philos. (M) Man kan in nichts geistreich, seyn (,) selbst über Geschichte kan man nicht

geistreich
 raisonniren — ohne ästhetischen Sinn. Hier soll offenbar werden,
 woran es eigentl. den Menschen fehlt, die keine Ideen verstehen,
 — und treuherzig genug
 gestehen, daß ihnen alles dunkel ist, sobald es über Tabellen u. Re-
 gister hinausgeht.

Die Poësie bekömmt dadurch e höhere Würde, sie wird am Ende
 wieder, was sie am Anfang war — *Lehrerin der (Ge-
 schichte)Menschheit*; denn es gibt keine Philosophie, keine Ge-
 schichte mehr, die Dichtkunst allein wird alle übrigen Wissen-
 schaften u. Künste überleben.

Zu gleicher Zeit hören wir so oft, der große Hauffen müße eine
*sinnliche Re-
 ligion* haben. Nicht nur dr große Hauffen, auch der Phil. bedarf
 ihrer. Monotheismus der Vern. des Herzens, Polytheismus dr Ein-
 bildungskraft u. derKunst, dis ists, was wir bedürfen!

Zuerst werde ich hier von einer Idee sprechen, die so viel ich weiß,
 noch
 in keines Menschen Sinn gekommen ist — wir müßen eine neue
 Mythologie haben, diese Mythologie aber muß im Dienste der
 Ideen stehen, sie mus e Mythologie der *Vernunft* werden.

Ehe wir die Ideen ästhetisch d.h. mythologisch machen, haben
 sie für das *Volk* kein Interesse u. umgek. ehe d. Mythol. vernünftig
 ist, muß sich dr. Philos. ihrer schämen. So müssen endl. aufgeklärte
 u. Unaufgeklärte sich d. Hand reichen, die Myth. muß philoso-
 phisch werden, und das Volk vernünftig, u. d. Phil. muß mytholo-
 gisch werden, um die Philosophen sinnl. zu machen. Dann
 herrscht ewige Einheit unter uns. Nimmer der verachtende Blick,
 nimmer das blinde Zittern des Volks vor seinen Weisen u. Prie-
 stern. Dann erst erwartet uns *gleiche* Ausbildung.
aller Kräfte, des Einzelnen sowohl als aller Individuen (.). Keine
 Kraft wird mehr unterdrückt werden, dann herrscht allgemeine
 Freiheit und Gleichheit der Geister! — Ein höherer Geist vom

Himmel gesandt, muß
diese neue Religion unter uns stiften, sie wird das letzte, grösste
Werk der Menschheit seyn.

소위 독일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프로그램«

앞면

윤리학. 앞으로 전체 형이상학은 도덕에로 이를 것이기 때문에 -
이것에 대해 칸트는 자신의 두 가지 실천적 요청들을 통해 오직 한 가지 예
증만을 제공해주었을 뿐, 아무 것도 논증하지 못했다 -, 이러한 윤리학은
바로 모든 이념들의 완전한 체계\또는
그와 동일한 것으로서 모든 실천적 요청들의 완전한 체계 (를 포함
한다 -)

가 될 것이다. 첫째가는 이념은 물론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본질로서의 나
자신의 표상이다. 자유롭고도 자기 의식적인 본질을 통해 - 무로부터 -
전체 세계가 모습을 드러내며, 상기시킬 수 있는 유일하게 참된
무로부터의 창조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 여기서 나는

물리학의 영역으로 하강해

볼 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도덕적인 본질을 위한 세계는
어떤 식으로 획득되어 있어야 하는가? 나는 여러 실험들을 거치며
힘겹게 나아가는 우리의 더딘 물리학에 일단 다시 한 번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만일 철학이 이념들을, 그리고 경험이 자료들을 진술해 준다면,
우리는 결국 내가 이후의 시대들에서나 기대하는 보편적인

물리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물리학은 우리의 정신과 같은, 혹은 우리의 정신이
추구하는 창조적인 정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나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노력에 의한 산물로 나아간다. 인류의 이념은
진보하고 있다 - 나는 기계의 이념이 존재하지 않듯이, 국가의 이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일종의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유의 대상인 것만이 이념이라 불리우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를 넘어서야만 한다! -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자유로운 인간들을 기계적인

툭니바퀴처럼 다루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국가는 그러한 행위를 중단해야만 한다.

당신들은 이 자리에서 영원한 평화 등과 같은 것들의 모든 이념들이 단지

보다 높은

이념의 하위이념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동시에 여기서 나는

인류의 역사를

위한 원리들을 기록할 것이며, 국가, 헌법, 정부, 입법 등과 같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보잘 것 없는 전체산물을 마지막까지 낱알이 폭로해 낼 것이다.

결국 도덕적 세계, 신성, 불멸성 등의 이념들이 도래할 것이며, - 온갖 종류의

미신 등이 전복될 것이고, 요즈음

이성을 가장하는 성직자 계급은 이성 자체에 의해 추구를 받게 될

것이다. - 그리하여 자기 외부에서 신도 불멸성도 찾아서도 안 되는,

즉 지적인 세계를 자체 내에 담지하고 있는 모든 정신들의 절대적 자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이념, 즉 보다 높은 플라톤적인 의미에서의 미의 이념인 것이다. 나는

이제 이성이 모든 이념들을 포괄함으로써, 이성의 최고의 행위가

미적인 행위가

되며, 진리와 선이 오로지 미 안에서만 자매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확신한다. - 그리하여 철학자는 시인이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미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어야

뒷면

하는 것이다. 미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란 바로 우리의 문자적 철학자들 BuchstabenPhilosophen이다. 정신의 철학은 미적인 철학이다.

미적인 감각

이 없이 우리는 결코 정신적으로 풍요로울 수 없으며, 역사에 대해

정신적으로

날카로운 통찰을 가질 수 없다. 여기서 어떠한 이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형식적인 표와 목록을 벗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문학(예술)은 보다 높은 위업을 얻게 될 것이며, 또다시 그것은 종국에 가서 처음의 모습, 즉 (역사)인류의 교사 *Lehrerin der (Geschichte)Menschheit*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역사도 없을 것이며, 오로지 시 예술만이 여타의 모든 학문들과 예술들을 존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들곤 한다. 즉 대중은

감성적 종교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뿐만이 아니라 철학자 역시 그러한 종교를 필요로 한다. 일신론은 심성의 이성을, 다신론은 상상력과 예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선 나는 내가 아는 한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파악되지

못했던

이념에 대해 언급해 보려고 한다 - 즉 우리는 **새로운 신화 eine neue Mythologie**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는 이념들에 복무해야만 하며, 결국 그러한 새로운 신화는 **이성의 신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념들을 미적인 것으로 즉 신화적인 것으로 만들기 전에, 이념들은 민족을 위해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으며, 반대로 신화가 이성적이기 전에, 철학은 먼저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하여 계몽된 것과 계몽되지 않은 것은 서로 악수를 청하고, 철학자들을 감각적으로 만들기 위해 신화는 철학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통일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떠한 경멸적인 시선도 없어지게 될 것이며 현자들과 성직자들 앞에서 민중들이 맹목적으로 떠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든 힘들, 개별자 그리고 모든 개인들의 동등한 육성이다. 어떠한 힘도 더 이상 억압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면 정신들의 일반적인 자유와 평등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보다 고귀한 정신은 이러한 새로운 종교를 우리들 가운데서 수립해야만 한다. 이러한 새로운 종교는 인류의 궁극적인,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것이다.

‘체계프로그램’의 ‘앞면’에서 다루지는 문제는 우선 ‘도덕적인 본질을 위한 세계는 어떤 식으로 획득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통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문제와 칸트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를 윤리학의 새로운 정초에서 보았다는 사실은 저자들, 즉 횰더린, 헤겔, 셸링에게서 현실의 정신적 피폐함을 극복하는 문제가 얼마만큼 절실한 문제였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윤리학의 새로운 정초가 모든 이념들의 체계구성을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이념들 중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본질로서의 나 자신의 표상’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유롭고도 자기 의식적인 본질’인 절대적 자아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세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들에게 있어 세계의 재구성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의미하는바, 여기서 ‘무’란 앞서 횰더린의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자기해소 *das sich Auflösende zwischen Seyn und Nichtseyn*”²²⁾의 의미를 지니는 “긍정적 무 *das positive Nichts*”²³⁾와 통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생생한 삶의 기본적인 표상인 존재의 모습은 존재와 비존재의 넘나들이며, 이러한 모습은 원리로서의 자아 속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세계는 나의 표상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 ‘무’ 또는 ‘긍정적 무’로부터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의 표상’과 실재성 간의 관계를 정립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물세계의 일반적인 원리를 묻는 학문으로서 ‘물리학’을 근거 규정한다. 그들은 우선 당시까지의 물리학이 가설과 실험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힘겹게 나아가는’ 모습과 거리를 두면서, 근거 규정적인 정신을 담지한 ‘보편적인 물리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창조적인 정신’을 구현할 가능성을 ‘보편적인 물리학’에서 찾고자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저자들은 우선 현실적으로 가로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비판한다. 그러한 비판 대상들 중 첫 번째 대상은 ‘기계적인 것’이다. 그들은 특히 국가가 보여주는 기계적인 지배 장치는 유기적인 인간의 삶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의 이념을 통해 국가를 극복하고자 한다. ‘기계적인 것’과 맞물려 있으면서 이념적으로 보다 고도로 작용해 왔던 이성 역시 주요한 비

22) Hölderlin, Friedrich: Friedrich Hölderlin Historisch-Kritische Ausgabe, Bd. 14, hrsg. v. D. E. Sattler u.a., Frankfurt a.M.: Stroemfeld / Roter Stern, 1979, S. 175.

23) Hölderlin, Friedrich: Friedrich Hölderlin Historisch-Kritische Ausgabe, Bd. 14, S. 311.

판의 대상이 된다. 절대적인 자유를 본질로 하는 이성이 국가와 종교의 이데올로기로 잘못 사용됨으로써, 이성의 본래적인 의미는 상실된 채, 억압기제로서의 이성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플라톤적인 의미의 미’의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플라톤적인 의미의 미’가 철학적인 물음과 윤리적인 물음이 만나는 공통의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미의 이념에서 저자들이 본래적인 이성의 이념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귀결일 것이다. 결국 “철학자는 시인이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미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앞면’에서는 창조적인 정신과 실제성을 아우르는 철학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것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미적인 힘’이 논지의 핵심이었다면, ‘뒷면’에서는 이러한 ‘미적인 힘’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상하는 것에 초점이 놓여있다. 저자들은 우선 미감이 결여된 사람을 칸트 철학의 정신과 문자 중 정신이 결여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미감의 육성은 칸트 철학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적 정신을 통해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분류와 배열의 정신이 아니라, 반성과 성찰의 정신이야말로 미감의 계발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일 수 있으며, 이러한 미감의 교육을 가능케 해주는 ‘시 예술’만이 원자화된 학문들의 비소통성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감의 교육 내지는 계발에 복무하는 시 예술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것은 ‘이념들을 미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종교와도 같은 ‘새로운 신화’인 것이다. 새로운 신화는 ‘철학자들을 감각적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이성의 신화’이기도 한 것이다. 새로운 신화로서 이성의 신화가 구현된다면, 모든 개별 영역들과 개별자들, 그리고 개인들이 가치에 있어서 동등한 이념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같은 두 쪽 분량의 짧은 글에서 독일관념론과 전기 낭만주의 전체를 규정하는 기본 이념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글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 사상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²⁴⁾. 그럼에도 불

24) 헤겔은 일찍이 쉴러의 인간의 미적인 교육에 관한 서한 Briefe über die ästhetische

구하고 이 글의 저자들인 훔더린과 헤겔 그리고 셸링이 제시한 이념들은 철학의 기본 이념의 정립에 있어서나 철학함의 방법에 있어서 가치 혁명적이라 할 만큼 결정적인 전회를 야기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 혹은 유럽 Die Christenheit oder Europa』(1799)에서 노발리스에 의해서도 “방아기계 그 자체, 즉 기술자와 방아를 짚는 사람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영구기관이 없이 자기 자신을 짚는 방아”²⁵⁾로 규정되었으며, 셸링에 의해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 System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1800)에서 “완전히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기계”²⁶⁾로 파악된 정치체제로서의 국가 내지는 독자적으로 구동되는 계몽주의의 체계는 정당성 위기를 지시해주는 지표로서 이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순수한 형식인 이성의 신화로서의 새로운 신화를 통해 극복 가능한 것이다.

시대적 위기극복의 담지자로 제시된 시문학으로서의 새로운 신화는 현대의 신화담론에 까지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해주었던 프리드리히 쉐레겔의 ‘새로운 신화 담론’에서 보다 정교화 된다. 『포에지에 관한 대화 Gespräch über die Poesie』의 한 장을 이루는 ‘신화에 관하여 Rede über die Mythologie’에서 쉐레겔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신화의 내연과 외포를 규정한다:

우리의 포에지에는 고대인들의 포에지에 대해 신화가 가졌던 위상과 같은 중심점이 결여되어 있다, … : 우리는 그 어떤 신화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신화를 얻는데 까지 거의 이르러 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의 신화를 산출하는데 함께 동참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

Erziehung des Menschen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칸트의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진숙했다. J. M. Ripalda, Poesie und Politik beim frühen Hegel, In: Hegel-Studien 9 (1973)과 O. Pöggeler, Hegels praktische Philosophie in Frankfurt, In: Hegel-Studien 9 (1973) 참조. 셸링 역시 인문주의자인 단테로부터 근대의 의식형성에 대한 단초들을 발견한다. F. W. J. Schelling, Ueber Dante in philosophischer Hinsicht, In: Philosophische Journal der spekulativen Physik, G. W. F. Hegel, Gesammelte Werke Bd. 4 (Hamburg 1968) 참조.

- 25) Novalis: Die Werke Friedrich von Hardenbergs, Schriften Bd. III, hg. v. R. Samuel, Darmstadt 1983, S. 515.
 26) Schelling, F. W. J.: System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In: Ausgewählte Werke Bd. 7, Schriften von 1799-1801, Darmstadt 1982, S. 584.

새로운 신화는 ...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Es fehlt ... unserer Poesie an einem Mittelpunkt, wie es die Mythologie für die der Alten war, ... : Wir haben keine Mythologie. Aber setze ich hinzu, wir sind nahe daran eine zu erhalten, oder vielmehr es wird Zeit, daß wir ernsthaft dazu mitwirken sollen, eine hervorzubringen. ...

Die neue Mythologie muß ... aus der tiefsten Tiefe des Geistes herausgebildet werden.²⁷⁾

파르메니데스 이래로 ‘사물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을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것이 우리의 언어사용체계로 들어오는 순간 진리나 이성이라는 표현들은 더 이상 없는 것에 대한 ‘기억 ἀνάμνησις, anamnesis’과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이다²⁸⁾. 그리하여 이성 또는 사물과 예술의 본질 등을 의미하는 로고스와는 달리 ‘메타포적 기능작용을 수행하는 말’²⁹⁾이자 ‘아직 진리의 빛으로 끌어들여지지 않은 말’을 의미하는 ‘뫼토스’는 침묵으로 말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로고스는 뫼토스의 희생 또는 내재화를 통해 존재하게 되는 “뫼토-로기 Mytho-logic”³⁰⁾인 것이다. 따라서 슬레겔이 말하는 ‘고대인들의 포에지에서 신화가 가졌던 중심적 위상’이란 바로 로고스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서의 ‘뫼토스의

27) Schlegel, Friedrich: Kritische Friedrich Schlegel Ausgabe, Bd. II. Charakteristiken und Kritiken I (1796-1801), hg. v. H. Eichner, Darmstadt 1967, S. 312 (이후로는 KFSA로 약칭).

28) Frank, Manfred: Die Dichtung als »Neue Mythologie«, In: Mythos und Moderne. Begriff und Bild einer Rekonstruktion, hg. v. K. H. Bohrer, Frankfurt a.M. 1983, S. 16.

29) 플라톤에게 있어 기억은 메타포 작용으로 이해된다. Vgl. Platon, “만일 누군가가 그 무엇을 보거나 듣고서,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지각하고서, 그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인식을 야기시키는 또 다른 것을 표상한다면, 그는 그에게 표상의 대상이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지 않을까?”, Platon, Phaidon, In: Sämtliche Werke, Bd. 3, hrsg. v. Ernesto Grassi unter Mitarbeit von Walter Hess, Hamburg 1958, 73c-d. 메타포 작용으로서의 상기는 지각작용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지각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지각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진 것을 순수하게 그 자체로 파악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30) Frank, Manfred: Die Dichtung als »Neue Mythologie«, S. 17.

내재화 *Verinnerung des Mythos*'인 것이며, 뮈토스는 로고스의 삶의 작용공간이라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슬레겔이 근대에는 고대적인 의미의 신화가 없다고 말할 때, 그리고 이제 모두 그것을 얻어내는 작업에 동참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할 때, 그는 바로 내재화된 삶의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며 그 가능성을 관념론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신화가 오직 정신의 가장 내적인 심연으로부터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부각되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시대의 위대한 현상인 관념론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에 대한 매우 의미심장한 암시와 주의를 기울일만한 확증을 발견하게 된다.

Kann eine neue Mythologie sich nur aus der innersten Tiefe des Geistes wie durch sich selbst herausarbeiten, so finden wir einen sehr bedeutenden Wink und eine merkwürdige Bestätigung für das was wir suchen in dem großen Phänomen des Zeitalters, im Idealismus! (KFSa II, 313)

정신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아가면서 다시금 자기 자신으로 귀환하는 끝없는 전환을 수행하는 것이듯이, 그와 동일한 과정이 그러한 자기 법칙의 인정일 따름인 관념론의 모든 형태의 일반적인 과정에서도 보여진다. 그것은 결국 인정을 통해 배가된 새로운 삶, 즉 그 자체의 비밀스런 힘을 새로운 창안의 무한정한 충만함과 보편적인 전달가능성 그리고 생생한 작용력을 통해 가장 장려하게 드러내주는 삶인 것이다.

Wie es das Wesen des Geistes ist, sich selbst zu bestimmen und im ewigen Wechsel aus sich heraus zu gehn und in sich zurückzukehren ... : so ist derselbe Prozeß auch im ganzen und großen jeder Form des Idealismus sichtbar, der ja selbst nur die Anerkennung jenes Selbstgesetzes ist, und das neue durch die Anerkennung verdoppelte Leben, welches die geheime Kraft desselben durch die unbeschränkte Fülle neuer Erfindung, durch die allgemeine Mitteilbarkeit und durch die lebendige Wirksamkeit aufs herrlichste offenbart. (KFSa 2, 315)

‘정신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통해 다듬어져 모습을 드러낸다’는 표현은 독일관념론자들의 철학적 중심축인 ‘정신의 절대적

작용'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한 계기를 다른 계기들과 '구별짓는 작용 Differenzieren'과 그 한 계기를 '규정하는 작용 Bestimmen', 그리고 그 계기가 속해있는 연쇄관계의 '정교화 작용 Artikulieren' 등을 포괄하는 정신의 절대적 작용은 피히테에게서는 "자기 안으로 돌아오는 활동 die in sich zurückgehende Tätigkeit과 자기 밖으로 나아감 Herausgehen aus sich selbst의 형태로, 헤겔에게서는 자기구분 내지는 자기의 내재적 대상화와 자기 귀환의 형태로, 그리고 셸링에게서는 절대적 펼침 absolute Evolution과 절대적 말아넣음 absolute Involution의 형태로"³¹⁾ 이루어진다. 이미 헤르더에게서도 암시된 바 있는 이 같은 정신의 절대적 작용은 전체구조의 모습을 이미 간직하고 있는 '전일성 All-Einheit' 그 자체이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피히테의 경우 '내부로 향한 삶 das inwendige Leben', 헤겔의 경우 '개념의 집중적인 총체성 die intensive Totalität des Begriffs', 셸링의 경우 '순수한 집중성 die reine Intensität'"³²⁾인 것이다. 결국 '엑스타시'(Ekstasis, 자신을 자기 밖에 정립함)와 '죽음 또는 내재화'로서의 정신의 내적인 삶을 추구한 독일관념론자들의 노력은 '자기로부터 나아가는 동시에 다시 자기 자신으로 귀환하는 자기법칙의 인정을 통해 배가된 삶이자 정신의 은밀한 힘을 드러내주는 삶'을 추구한 술레겔의 노력과 같은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술레겔의 새로운 신화의 담지체로서 관념론은 통상 관념론과 실재론을 구분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전달을 위한 기관)을 오직 포에지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철학이나 체계의 형태로는 실재론이 결코 다시 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전통에 따르면 할 때에도 이러한 새로운 실재론은 관념적 근원을 가지며 동시에 관념적인 토대 위에서 부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포에지로서, 즉 관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조화에 근거하는 포에지로서 나타나게 되리라고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Doch weiß ich, daß ichs nur in der Poesie finden kann, denn in Gestalt der

31) 김윤상: 존재의 모험, p. 184-185.

32) 김윤상: 존재의 모험, p. 183-184.

Philosophie oder gar eines Systems wird der Realismus nie wieder auftreten können. Und selbst nach einer allgemeinen Tradition ist es zu erwarten, daß dieser neue Realismus, weil er doch idealischen Ursprungs sein, und gleichsam auf idealischem Grund und Boden schweben muß, als Poesie erscheinen wird, die ja auf der Harmonie des Ideellen und Reellen beruhen soll. (KFSa 2, 315)

앞서 논의된 바 있듯이, 슐레겔이 말하는 새로운 신화는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부터, 즉 관념론으로부터 형성된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포에지로서 현상하는 새로운 실재론’이란 무엇이며 관념론과는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 것일까? 고대부터 미의 영역에 속하는 포에지는 뫼토스처럼 로고스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토대였다. 그러나 ‘뫼토-로기’의 시대가 지나고 헤겔의 규정처럼 “통일의 힘이 인간의 삶으로부터 사라지고 대립들이 자체의 생생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외따로 존재하게 된 때”³³⁾인 근대가 도래했을 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바로 ‘정신의 내재적 삶의 회복’이며, 이 때 로고스적 정신은 고대와는 달리 자신의 내재적 삶의 ‘정교화’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로고스 고유의 뫼토스가 가지는 작동체계로서의 관념론은 자신의 실제적 기반인 포에지로서의 실재론을 ‘자기 자신의 타자’로서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발리스는 포에지를 “진정 절대적으로 실제적인 것 das ächt absolut Reelle”³⁴⁾으로 규정하였으며, 셸링은 “철학의 유일하게 참되고 영원한 오르가논이자 증서 das einzige wahre und ewige Organon zugleich und Dokument der Philosophie”³⁵⁾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셸링이 말하는 ‘철학의 증서로서의 예술’이란 “철학이 외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새로운 것, 즉 활동과정과 산출과정에서의 무의식적인 것을 비롯하여 이것과 의식적인 것 간의 근원적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것을 증명해주는 것”³⁶⁾을 의미한다. 결국 셸링에 따

33) Hegel, G. F. W.: Differenz des Fichte'schen und Schelling'schen Systems der Philosophie, In: Gesammelte Werke, Bd. 4, Hamburg 1968, S. 14.

34) Novalis: Die Werke Friedrich von Hardenbergs, Schriften Bd. II, hg. v. R. Samuel, Darmstadt 1960, S. 647.

35) Schelling, F.W.J.: System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S. 627.

르면, ‘철학을 잉태하고 양육했던 포에지는 철학이 성숙된 이후에 다시금 철학이 되돌아가야하는 근원 또는 보편적 대양인 것이며’³⁷⁾, 슐레겔에 따르면, “모든 포에지의 시작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이성의 진행과정과 법칙들을 지양하여 이것들을 다시금 ‘판타지의 아름다운 뒤섞임 die schöne Verwirrung der Fantasie’ 속으로, 즉 ‘인간본질의 근원적인 혼돈 das ursprüngliche Chaos der menschlichen Natur’ 속으로 옮겨놓는 일”(KFSa 2, 319)인 바, 이 둘 모두에게 있어 철학을 비롯하여 학문들을 근원적 포에지로 회귀하도록 해주는 매개는 바로 ‘새로운 신화’인 것이다.

이제 셸링에 의해 ‘철학의 증서이자 오르가논’으로 규정되고 슐레겔에 의해 ‘관념-실재론 Ideal-Realismus’으로 규정된 포에지로 이르게 해주는 새로운 신화는 추동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추동되는가는 열려져 있다. 슐레겔은 그 한 가능성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동방식을 제기한다.

신화는 자연의 그러한 예술작품이다. 그것의 그물망 속에서는 최고의 것이 실제로 형성되어 있다. 즉 모든 것은 관계이고 변화이며, 덧붙여지고 변형된다. 이러한 덧붙여짐과 변형은 그것의 고유한 진행방식이고 내적인 삶이며 방법인 것이다, ...

Die Mythologie ist ein solches Kunstwerk der Natur. In ihrem Gewebe ist das Höchste wirklich gebildet; alles ist Beziehung und Verwandlung, angebildet und umgebildet, und dieses Anbilden und Umbilden eben ihr eigentümliches Verfahren, ihr innres Leben, ihre Methode, ... (KFSa 2, 318)

평면적 좌표체계가 아니라 입체적인 그물망조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덧붙여지고 변형되면서 서로 관계와 변신을 반복하는 신화적 작동방식은 관념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의 구분을 뛰어 넘는, 아니 그러한 구분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삶의 실재적 작용공간을 드러내주는 정신과 삶의 기본적인 구조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신화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유비적

36) Schelling, F.W.J.: System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S. 627-628.

37) Schelling, F.W.J.: System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S. 629.

인 우리 자신의 ‘신화적 사유방식’³⁸⁾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순수한 의미화 작용에 기반하여 신화적 소재들이 끊임없는 유예를 이루며 관계를 맺는 기호학적 연쇄’³⁹⁾를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Ⅲ. 나가는 글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양한 의미맥락들의 실타래들을 엮어낼 수 있겠지만, 현재의 정신적 삶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실천적인 함의를 끌어내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 독일 전기 낭만주의자들과 독일관념론자들의 다양한 근대적 자기성찰들이 일종의 모자이크 형태와 같은 사상적 지형을 형성하면서도 공통적으로 견지하였던 문제의식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시대적 위기와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었으며,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근원적 욕구와도 같은 ‘철학적 반성’과 이를 기저에서부터 이끌고 가는 ‘미적인 힘’을 통해 존재일반의 상태를 규명하려는 노력이었다. 특히 18세기 말이라는 세기 전환기에 새로운 신화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전개된 다양한 사유의 모험들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져온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의식에 깊이 천착하여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루고 있는 기본개념들의 ‘물질적 양태’들을 최대한 외화 시켜 증식과 융합의 역동적 구조로 옮겨 놓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Sein und Zeit』에서 학문적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말할 때 근거로서 제시되는 ‘위기 Krisis’ 개념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학문적 수준을 규정하는 기준은 “학문이 어느 정도로 자체의 기본개념들을 결정짓고 이러한 결정에 의거하여 근본적인 도약의 가능성을 점 칠 수 있는가”⁴⁰⁾에 따라 결정

38) Cassirer, Ernst: Die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Bd. 2, Das mythische Denken, Darmstadt 1953 (Zweite Aufl.).

39) Barthes, Roland: Mythen des Alltags, Frankfurt a.M. 1985, S. 93.

40) Heidegger, M., Sein und Zeit, 17. Aufl. Tübingen 1993, S. 9.

된다고 한다. 즉, 위기개념을 그것의 본래적 의미인 ‘결정’ 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역사적 현실에 문제를 던지는 자신과 자신에 의해 문제화된 현실사태, 그리고 문제제기의 모습 등을 극단으로 까지 분석하는 우리의 노력여부에 따라 새로운 도약가능성이 타진될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전기 낭만주의와 독일관념론 사유공간 그리고 그 내에서 작동하였던 새로운 신화의 미적인 이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 역시 이 같은 위기조절능력의 계발이며, 이러한 능력에 근거하여 우리는 삶의 내적인 긴장과 풍요로움을 자기 및 자신의 시대상황과의 치열한 접전을 통해 생기화 시켜 이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발전을 모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Barthes, Roland: *Mythen des Alltags*, Frankfurt a.M. 1985.
- Benson, Timothy O.: *Fantasy and Functionality: The Fate of Utopia*, In: *Expressionist Utopias. Paradise · Metropolis · Architectural Fantas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Los Angeles · London 2001.
- Blumenberg, Hans: *Wirklichkeitsbegriff und Wirkungspotential des Mythos*, In: *Terror und Spiel. Probleme der Mythenrezeption*, hg. v. M. Fuhrmann, München 1971 (= *Poetik und Hermeneutik* Bd. 4).
- Bubner, Rüdiger (Hrsg.): *Hegel-Tage Villigst 1969: Das »Älteste Systemprogramm«*. Studien zur Frühgeschichte des deutschen Idealismus, Bonn 1973 (*Hegel-Studien*, Beiheft 9).
- Cassirer, Ernst: *Die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Bd. 2, *Das mythische Denken*, Darmstadt 1953 (Zweite Aufl.).
- _____: *The Myth of the State*, New York 1955 (1944).
- de Saussure, Ferdinand: *Grundfragen der allgemeinen Sprachwissenschaft* (*Cour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1916), übers. v. H. Lommel (2. Aufl.), Berlin 1967.
- Derrida, Jacques: *Grammatologie* (*De la grammatologie*, Paris 1967), übers. v. H.-J. Rheinberger u. H. Zischler, Frankfurt a.M. 1983.
- Frank, Manfred: *Der kommende Gott. Vorlesungen über die Neue Mythologie*, Frankfurt a.M. 1982.
- _____: *Die Dichtung als »Neue Mythologie«*, In: *Mythos und Moderne. Begriff und Bild einer Rekonstruktion*, hg. v. K. H. Bohrer, Frankfurt a.M. 1983.
- Hegel, G. F. W.: *Differenz des Fichte'schen und Schelling'schen Systems der Philosophie*, In: *Gesammelte Werke*, Bd. 4, Hamburg 1968.
- Heidegger, M., *Sein und Zeit*, 17. Aufl. Tübingen 1993.
- Henrich, Dieter: *Aufklärung der Herkunft des Manuskripts »Das älteste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In: *Mythologie der Vernunft. Hegels »ältestes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 hrsg. v. Ch. Jamme u. H. Schneider, Frankfurt a.M., 1984.
- Herder, Johann Gottfried: Werke Bd. 8, Schriften zu Literatur und Philosophie 1792-1800, Deutsche Klassiker Verlag: Frankfurt a.M. 1998.
- Hölderlin, Friedrich: Friedrich Hölderlin Historisch-Kritische Ausgabe, Bd. 14, hrsg. v. D. E. Sattler u.a., Frankfurt a.M.: Stroemfeld / Roter Stern, 1979.
- Jamme, Christoph u. Schneider, Helmut(hrsg.): Mythologie der Vernunft. Hegels »ältestes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Frankfurt a.M., 1984.
- Jamme, Christoph: Gott an hat ein Gewand. Grenzen und Perspektiven philosophischer Mythos-Theorien der Gegenwart, Frankfurt a.M. 1991.
- Kandinsky, Wassily: Über die Formfrage, In: Der Blaue Reiter, hg. v. W. Kandinsky u. F. Marc, München 2004 (Jubiläumsedition der ersten Ausg. 1912).
- Lacoue-Labarthe, Philippe and Nancy, Jean-Luc: The Literary Absolute (L'Absolu Littéraire, Paris 1978), trans. by Ph. Barnard and Ch. Leste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 Marc, Franz: Die »Wilden« Deutschlands, In: Der Blaue Reiter.
- Novalis: Die Werke Friedrich von Hardenbergs, Schriften Bd. II, hg. v. R. Samuel, Darmstadt 1960.
- _____: Die Werke Friedrich von Hardenbergs, Schriften Bd. III, hg. v. R. Samuel, Darmstadt 1983.
- Platon, Phaidon, In: Sämtliche Werke, Bd. 3, hrsg. v. Ernesto Grassi unter Mitarbeit von Walter Hess, Hamburg 1958.
- Pöggeler, Otto: Hegels praktische Philosophie in Frankfurt, In: Hegel-Studien 9.
- Ripalda, J. M.: Poesie und Politik beim frühen Hegel, In: Hegel-Studien 9.
- Rosenzweig, Franz: Das »älteste Systemprogramm« des deutschen Idealismus. Ein handschriftlicher Fund, Heidelberg 1917 (Sitzungsberichte der Heidelberg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Jg. 1917, 5. Abh.).

- Schelling, F. W. J.: Ueber Dante in philosophischer Hinsicht, In: Philosophische Journal der spekulativen Physik, G. W. F. Hegel, Gesammelte Werke Bd. 4, Hamburg 1968.
- _____: System des transzendentalen Idealismus, In: Ausgewählte Werke Bd. 7, Schriften von 1799-1801, Darmstadt 1982.
- Schiemann, Gregor: Wahrheitsgewissheitsverlust: Hermann von Helmholtz' Mechanismus im Anbruch der Moderne, Darmstadt 1997; Gyorgy Kepes, Sprache des Sehens, Mainz 1970.
- Schlegel, Friedrich: Kritische Friedrich Schlegel Ausgabe, Bd. II. Charakteristiken und Kritiken I (1796-1801), hg. v. H. Eichner, Darmstadt 1967.
- Stierle, Karlheinz: Mythos als >bricolage< und zwei Endstufen des Prometheusmythos, In: Terror und Spiel.
- 김윤상: 『존재의 모험』, 인간사랑: 서울, 2004.
- _____: 『지각학 Aisthetik으로서의 미학 Ästhetik?』, In: 독일문학 제 100집, 2006.

<독문초록>

Die Neue Mythologie und das Ideal der Schönheit

Kim Yun Sang (Sogang Univ.)

Der Mythos der technologischen Rationalität und der effizienten Arbeit in der Moderne hat sich im postmodernen Zeitalter in den funktionell sich regulierenden Modalitäten und der informellen Ketteneffekte umgewandelt. Seit *The Structural Study of Myth*(1955) konzentriert sich die Mythologie, die eine bestimmte Rolle nicht nur als ein soziales Symbolsystem sondern auch als „die Objektivierung der menschlichen gesellschaftlichen Erfahrungen“ gespielt hat, auf die Problematik der rationalen Organisation des Mythos. Lévi Strauss, der aufgrund der Darstellungsweise der „synchronen Beziehungsbündel“ die Wiederholungsstruktur der Mythen zutage zu fördern versucht hat, stellt in *La pensée sauvage* (1962) einen Begriff ‚bricolage‘ als einen Kernbegriff des mythischen Denkens auf. Er bezieht sich auf eine Arbeitsweise, mit der das unbrauchbare Alte aus seinen ursprünglichen Zusammenhängen herausgenommen und durch die einfallsreiche Kombination einer neuen Intention dienstbar gemacht wird. Die Idee der ‚bricolage‘ als die der neuen Mythologie tritt an die Stelle des leitenden Prinzips in der Ausbildung des postmodernen Diskurses.

Wenn der Mythos der Rationalität der Technik und der Arbeit als „das rein Kompositionelle“ auftaucht und die Mythologie als ‚bricolage‘, d.h. als die mythischen Denkweise an die sinnkonstituierende Wirkungsweise der Moderne herantastet, lässt sich sagen, dass sie im gleichen Horizont mit der ‚Neuen Mythologie‘ in der Frühromantik und dem deutschen

Idealismus stehen. Denn das wichtigste Problembewusstsein bei den Romantikern und den deutschen Idealisten bestand darin, die Diskordanz zwischen dem Staat und dem Individuum als den Verlust der Legitimität zu sehen, und richtete sich auf die ‚Neue Mythologie‘ als die Kompensation desselben. In diesem Kontext werden in dieser Arbeit die verschiedenen Texte vom Ende 18 J.h. bis zum Anfang 19 J.h., in denen das Mythologie-konzept den Diskurs der Moderne konstituierend in Gang gekommen ist, analysiert und damit versucht, die Kernmerkmale für die moderne Aneignung des mythischen Diskurses herauszuarbeiten.

주제어: 새로운 신화, 브리콜라주, 이성의 신화, 신화적 사유

Schlüsselbegriffe: die Neue Mythologie, bricolage, die Mythologie der Vernunft, das mythische Denken

필자 E-Mail: kimyunsang@hotmail.com

논문투고일: 2007. 9. 30, 논문심사일: 2007. 10. 16, 게재확정일: 2007. 10. 30.